

한센인 A씨 “23살에 낙태수술...마취 안해 고통”

애양원 원장 “국가가 피해 줬지만 환자들 위한 것”

소록도서 특별재판...강제 낙태·정관수술 놓고 공방
사무친恨, 국가가 배상해야 vs 그뻐 최선이라 생각했다
재판부, 김씨·김금실 등 현장검증...내달 25일 마지막 재판

“23살에 낙태수술을 했어요. 기계를 넣어서 한 것 같아요. 2시간쯤 했는데 마취도 안했어요. 고통스러웠고 하혈을 많이 했는데, 약을 주거나 어떻게 하란 것도 없이 그게 끝이었어요.”(원고측 증인 한센인 A씨)

“소록도는 한센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예산도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면 소록도를 나가야 했고,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니다. 저도 정관절제수술을 집도했어. 그뻐 최선이라고 해서 한 일입니다. 지금의 잣대로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김인권 애양원 원장)

다. 법적 구제를 통해 한센인들의 사무친한을 치유하고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정부측 박종명 변호사는 “낙태·정관 수술이 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기관에서 강제로 실시한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도 한센인을 평생 돌본 의료진과 봉사자들이다”며 “한센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위로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센인 A(여·74)씨는 23살이던 1960년대 소록도에서 낙태수술을 한 경험을 진술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당시엔 소록도에서 살기 위해선 무조건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소록도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측 증인 김인권 여수애양원 원장은 “소록도는 당시 한센인의 아이를 키울 물적·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증언했다.

실, 김금실, 한센역사관·자료관, 수탄장, 만영당, 자혜의원 등 한센인들의 아픔이 서린 곳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7월25일 오전 10시 마지막 재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201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국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소록도=박정욱기자 jwpark@ /고흥=주각중기자 gju@



한센인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고훈군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 특별법정에서 한센인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절제 수술에 대한 특별재판을 열고 있다. /소록도=최현배기자 choi@

“해부된 태아 장기 보관 끔찍...낙태 후 치료도 못받아”

증언으로 본 한센인 질곡의 삶

“한센인들은 세번 죽습니다. 한번은 목숨이 다한 때이고, 두번째는 이 곳 검시실에서 해부되고, 세번째는 만영당에서 화장되는 것입니다.”

20일 오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민사30부 특별법정의 현장검증을 맡은 이남철씨의 검시실에 대한 설명이었다. 소록도병원에서 50년간 살았다는 한센인 이씨는 “죽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1970년대 초까지 검시실에서 해부가 이뤄졌다”며 “저를 포함한 한센인들에게 이곳은 매우 두려운 곳”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 찬장은 해부된 아이의 얼굴이나 장기를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던 곳이다. 1990년대까지도 여기 보관돼 있었는데...”라고 설명하자 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와 변호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씨는 검시실 바로 옆 김금실에 대해서는 “소록도에서 유일하게 담장이 있는 곳으로, 소록도를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온 한센인들을 가둬둔 곳”이라고 설명했다. 낙태와 정관절제 수술이 자행된 본관과 한센인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관, 엄마와 아이를 한달에 한번 만나게 한 면회장인 ‘수탄장’, 납골당인 ‘만영당’ 등도 안내했다.

증인으로 나온 한센인 할머니의 이야기

는 가슴을 에인다. 이 할머니는 8살때 한센병이 발병해 17살때 소록도에 들어왔다. 이 곳에서는 오전과 취침 전 점호를 했다고 한다. 도망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소록도는 한센환자들이 사는 환자사, 의료진이 사는 관사, 미감아(감염이 되지 않은 아이) 보호소 등의 시설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미감아는 대부분 소록도에 들어오기전 낳은 아이들었는데, 엄마와 아이는 한 달에 한번 ‘수탄장’에서 면회를 했다고 한다. 철조망 사이로 말이다.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 만큼 남녀의 사랑이 있었고, 그 결과 임신도 있었다. 임

신부는 듣지 않으려고 볼록 나온 배를 수건으로 칭칭 감고 생활했다고 한다. 용케 듣지 않으면 외출한 뒤 아이를 낳아 입양보냈다고 한다.

만약 임신사실을 듣기엔 낙태수술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고 너무 아팠다.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낙태 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 아빠는 이 사실을 듣고 “미안하다. 안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남자환자는 결혼을 하려면 정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장기인 할아버지는 소록도 한센인들의 눈물과 한을 이렇게 외쳤다. “소록도 바다는 한센인의 눈물이고, 소록도 바람은 한센인의 한숨이다.”

/소록도=박정욱기자 jwpark@

“대신 죽어 아들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경비행기 사고로 아들 잃은
이학영 의원 SNS에 심경 토로
자랑스런 아빠 모습 보여줄 것

지난 17일 무안 훈련용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들(30)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남겨 심경을 전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아이가 갔다. 상상도 못할 일을 당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신 죽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서른 해 동안 저희 부부는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보낸 왕자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달았다”라며 “꿈 같은 나날들이었다. 이제 아이는 하늘로 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야겠다”라고 남겼다.

이 의원은 슬픔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많은 분께 일일이 전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착하고 삼 살개 같이 씩씩하던 내 아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트위터에도 “눈부신 기억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사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전남대를 졸업한 이 의원은 순천 YMCA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냈다.

한편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기체를 김포공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옮겨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 원인은 내년 1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사고기를 제외한 시러스사에 기술 자문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에는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께 일일이 전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고훈군 두원면 대금리 앞 해안에서 여수선적 연안자망 H호(7.3t)의 선장 김모(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앞서 낮 12시에 고훈군 두원면 용당리 인근 해상에서는 김씨의 아내 강모(57)씨가 H호의 그물에 걸려 숨진 채 해경에 발견됐다.

해경은 김씨 부부가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해상추락 등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김씨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Y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였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 해상서 조업하던 부부 숨진 채 발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고훈군 두원면 대금리 앞 해안에서 여수선적 연안자망 H호(7.3t)의 선장 김모(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앞서 낮 12시에 고훈군 두원면 용당리 인근 해상에서는 김씨의 아내 강모(57)씨가 H호의 그물에 걸려 숨진 채 해경에 발견됐다.

해경은 김씨 부부가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해상추락 등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김씨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Y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였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알립니다=광주일보 6월20일자 6면 ‘옛도청 상황실·총탄흔적 복원’ 제하의 기사에 제작 상의 오류로 다른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광주일보 6월20일자 6면 ‘옛도청 상황실·총탄흔적 복원’ 제하의 기사에 제작 상의 오류로 다른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소방서·경찰 발빠른 대처...밤거리 활보 연쇄 방화범 조기 검거

○밤거리를 활보하며 오토바이와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놓은 50대 남성이 연쇄방화를 의심한 소방서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조기에 붙잡혀 구속될 처지.

○20일 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황모(50)씨는 지난 19일 밤 8시57분께 서구 양동 주택가에 세워진 이모(65)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불과 20여분 만에 3건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

○서부소방서는 첫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서 10여분만에 또 화재신고가 접수되자 연쇄방화범을 직감하고 경찰과 공조, 1시간만에 인근 모텔에서 잠 들어있는 황씨를 긴급포획했는데, 경찰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 먹고 사는 게 괴롭고 힘들었다. 술 마시고 홧김에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며 되레 큰소리.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밤거리를 활보하며 오토바이와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놓은 50대 남성이 연쇄방화를 의심한 소방서와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조기에 붙잡혀 구속될 처지.

○20일 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황모(50)씨는 지난 19일 밤 8시57분께 서구 양동 주택가에 세워진 이모(65)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불과 20여분 만에 3건의 방화를 저지른 혐의.

○서부소방서는 첫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서 10여분만에 또 화재신고가 접수되자 연쇄방화범을 직감하고 경찰과 공조, 1시간만에 인근 모텔에서 잠 들어있는 황씨를 긴급포획했는데, 경찰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 먹고 사는 게 괴롭고 힘들었다. 술 마시고 홧김에 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며 되레 큰소리.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초역세권 송탄역 1분 !!

▶ 건축 허가권 포함 매매 ◀

- ★ 평택 떠오르는 태양 ★
- ① 삼성전자 120만평
- ② 고덕 신도시개발
- ③ 미군기지 이전
- ④ KTX 개통
- 토지 - 142평
- 오피스텔 7개 설계 허가원료 - (즉시 개발 가능)
- 순수익 - 20억
- 사정상 급매 - (법인체 인수가능)

시행개발노하우, 건축시공자금, 컨설팅일체 원스톱 해드립니다.

※ 개발시 PF(용자) 35억!! ※ (소액 투자 가능)

▣ 매가 → 매가 15억 (용 9억가능)

※ 시행개발 전문회사 ㈜대신건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 서구 화정동(주유소)
 - 토 300평, 건 142평
 - 광천터미널 옆 4차선 도로점
 - ▣ 감평가 17억 - 최저가 17억
- ▣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9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합
 - 전 요양병원 운영
 - ▣ 감평가 48억 - 최저가 27억
-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 감평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
-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2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5천
-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 감평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
- ▣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지 174평, 건물 424평
 - 1층 (상가 2건) 2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이상
 - ▣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062-511-7800

경매교육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670-9800